비전개발 11주차 보고서

21600685 조예성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창조, 구속, 타락의 과정이다. 가장 먼저시 되는 것은 단연 창조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만물을 지배할 축복을 주셨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범하므로 세상의 질서는 무너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러한 죄성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거대한 역사의 서막을 여시게 된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은 결국 구속 완성으로 가는 단계의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들을 내어주는 과정들이 많이 나와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은 인간의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된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민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 훗날 메시아를 보내실 것임을 끊임없이 선포하셨다. 심지어는 당신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해 내려오셨다. 엄청난 권능과 절대자이시고 신이신 분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본인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자체가 되어, 심지어 왕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러한 사역을 보이셨을지, 그러한 엄청난 영광의 과정이 바로 구속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공생애를 하시기까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진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고난,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날 영광을 선포하셨고 삶을 통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훗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뒤에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나시게 되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직접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하는 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우리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고 가장 마지막인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훗날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모든 세상의 끝이 오고, 그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영광 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은 눈물도 고난도 없고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영광의 장소이다. 이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조금이라도 그 땅을 같이 가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서막의 끝에 있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